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6

2016 | Vol. 536

와카야마현(和歌山県) 하시쿠이이와(橋杭岩)
Photo : Kazuhisa Ishikawa



G7 정상회의

5월 26일 및 27일,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본이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8년 홋카이도 도야코(北海道 洞爺湖) 정상회의 이래 8년 만이다.



G7 정상회의 관련사진(Photo :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1. G7의 가치와 결속, 세계 경제

1. G7의 가치와 결속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 국제 질서에 대한 일방적인 행동에 의한 도전 같은 매우 긴요한 과제를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G7이 연계하여 국제 사회의 대응을 주도해 가기로 했다.

2. 세계 경제

(1) 총론

더욱 불투명해지는 현 세계 경제의 상황에 입각하여,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동시에 균형 있는 성장 궤도를 조속히 이루기 위한 G7의 대응을 논의했다.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G7으로서 금융, 재정, 구조 정책 3개 화살의 어프로치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① 경제정책에 따른 대응에 협력하고 강화할 것 ② 세계적 수요를 강화하고 공급 상의 제약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재정 정책과 구조 정책의 3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 특히 기동적인 재정 전략 실시와 과감한 구조 정책 추진에 협력하여,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2) G7 이세시마 경제 이니셔티브

세계 경제, 무역, 인프라, 보건, 여성, 사이버, 부패 같은 구체적 분야에서 G7으로서의 행동을 정리하고, 'G7 이세시마 경제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G7이 세계 경제를 견인한다는 명확한 자세를 알렸다.

(3) 우선 과제

①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기본적 요소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추진을 위한 G7 이세시마 원칙'에 G7으로서 합의했다. G7이 합의한 내용을 앞으로 각국, 국제 기관 등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프라 투자·지원 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촉구해 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올해 G7의장국으로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앞으로 5년간 총2000억 달러 규모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② 여성

여성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주춧돌로서, 여성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연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성 능력 계발을 위

한 G7 행동지침' 및 '여성 이과계 경력 축진을 위한 이니셔티브(WINDS)'에 합의했다. 또, 아베 총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약 5000명의 여성 행정관 등의 인재육성, 약 5만명의 여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③ 사이버

사이버 공격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법의 지배' 추진 및 디지털 이코노미 축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사이버에 관한 G7의 원칙과 행동'에 합의하는 동시에, 새로운 G7 워킹 그룹을 설치하여 사이버 보안에 관한 G7의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④ 부패 대책

부패는 법의 지배, 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같은 G7 공통의 가치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며,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대응은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G7이 모범이 되어, 국제 사회의 부패 대책 강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G7의 행동'에 합의했다.

(4) 세금 및 투명성

해외 자산 보유 뒤로 과세 포탈, 돈 세탁 등 불법 자금 흐



름이 있을 경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BEPS 프로젝트의 참가국 확대와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 그리고 법인 등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II. 무역

G7으로서 자유 무역의 중요성 및 보호주의 억제 약속을 재확인했다.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각적 무역체제 강화와 함께, 특정 분야에 대한 WTO 유지 국가간 협상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연계에 관한 TPP 서명을 환영하고 조기 발효에 따른 각국의 대응을 지지했다. 올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대체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일본 EU·EPA등의 메가 FTA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무역자유화가 개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도상국의 무역자유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III. 정치·외교

(1) 테러·폭력적 과격주의 대책

테러 대처 시, 공방·항만 테러대책 같은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 근본 원인인 폭력적 과격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관용 정신과 대화 촉진 같은 중장기적인 대응도 중요하며, G7으로서 각국의 강점을 활용, 상호 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국제적인 대응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테러 대책에 관한 국제적인 대응을 G7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G7 테러·폭력적 과격주의 대책행동계획'에 합의했다.

(2) 난민 문제

대규모 난민 유입에 직면한 유럽에 대해, G7의 결속·연대를 표명했다. 단기간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근본 원인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난민 문제 대처를 염두에 두고 '중동 안정화 지원' 공약으로 3년간 약 2만명의 인재 육성을 포함해서 총 60억 달러 지원을 중동 지역에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북한

납치 문제·핵·미사일 같은 북한을 둘러싼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G7의 긴밀한 제휴를 확인했다.

(4) 러시아·우크라이나

모든 당사자에게 민스크 합의의 완전 이행과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국내개혁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5) 해양 안전 보장

국제법에 따른 주장을 피력하고, 힘과 압력을 사용하지 말 것, 분쟁 해결에는 중재 절차를 포함해서 사법 절차에 따른 평화적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동중국해·남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고,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G7 장관 성명'을 정상으로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IV. 기후 변화, 에너지

(1) 기후 변화

COP21에서 합의한 모멘텀을 살리면서, 파리 협정의 조기 발효 및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G7이 솔선해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동시에 실효적인 배출 삭감을 추진하려면, 주요 배출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2) 에너지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보는, 국제 사회에 있어 지속적인 가장 긴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① 상류 개발, 질 높은 인프라,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의 촉진, ② 천연 가스 시장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행동, ③ 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에너지 효율의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5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함께,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c) 하우스텐보스/J-17296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 한국의 교류도시 파주시, 부산 서구

사세보시

사세보시(佐世保市)는 규슈 나가사키현(長崎県)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인구는 약 25만 명이다. 1860년대 후반까지는 농어촌이었지만 1889년 구(旧) 해군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진수부(鎮守府)가 설치되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산업면에서 보면 시내에 미해군 기지와 해상자위대가 소재함으로써 관련산업인 조선업이 발전했지만 현재는 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관광면에서는 일본 최대급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와 208개 섬들이 늘어서 풍광이 수려한 '사이카이국립공원 구주쿠시마(西海国立公園九十九島)'와 미해군의 레시피를 사세보식으로 재해석한 '사세보 버거(佐世保バーガー)', 일본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도라후구(とらふぐ, 복어의 일종)' 등의 특산물이 유명해, 일본 국내외에서 연간 약 580

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라 할 수 있다. 2015년 4월 사세보항에 국제터미널이 들어서면서 해외의 크루즈선이 다수 입항하여 항구 주변도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세보시와 자매도시 파주시의 교류

사세보시와 파주시의 교류는 2007년 10월 파주시의 자매도시결연 제안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사세보시와 파주시는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시민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관광' '거리 조성' 등의 공통점이 있어 2008년 11월 6일 '국제친선도시' 제휴를 맺었고, 교류 5주년을 맞은 2013년 11월 5일 '자매도시' 결연을 했다.

결연 이후에는 행정 및 의회 간 교류를 시작으로 청소년교류사업이나 시민단체의 상호 파견 및 문화단체 교류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통해 두 시의 우호와 인연을 다져 왔다.

특히 청소년 교류는 2009년부터 사세보시와 파주시 중학생이 상호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는 이문화를 경험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파주시와 사세보시의 직원(5명 정도)이 상호 간에 거리 조성 및 시정 운영, 각종 시책 등을 배우는 단기(4일간) 상호파견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두 시의 직원 1명씩을 상호 간에 장기연수(1년)로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다지고 시 직원의 국제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단체 교류는 사세보시의 '요사코이 사세보 축제(YOSAKOI さんぽ祭り)'에 파주시의 '태권도 연무단'이 출연하고, 반대로 파주시의 '파주 장단콩축제'에 사세보시의 요사코이팀이 출연하는 등 많은 시민과의 만남은 물론 매우 왕성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두 시가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세보시와 국제친선도시 부산광역시 서구와의 교류

부산광역시 서구와의 교류는 2012년 5월 서구로부터 두 시의 바다와 항구 등 공통점을 살린 교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다 2013년 8월 2일 국제친선도시 제휴를 맺었다. 제휴 이후에는 파주시와 마찬가지로 행정 및 의회 간 교류를 비롯해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가 사세보시를 방문해 사세보 시내 자치회와 의견 교환 및 시찰을 실시하여 주민 주도의 거리 조성을 서로에게 배우는 바람직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 시 직원을 상호파





접하는 단기연수에서는 서구 직원이 사세보시를 방문해 YOSAKOI 사세보 축제와 수산시장을 시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사세보시 직원이 서구를 방문할 때는 수산시장을 비롯해 송도해수욕장의 해상산책로 등을 시찰하고 관광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행정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추진을 도모했다.

서구는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 자리하고 있어 두 시의 수산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

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항구 도시 교류의 공통점을 살린 상호 교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류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파주시와 바다에 인접한 부산광역시 서구라는 각각의 특색을 가진 두 도시와의 교류는 사세보 시에게 한국을 보다 다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세보시는 일본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한국과 거리상으로 매우 가까운 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고, 행정뿐 아니라 시민 차원의 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두 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



문의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기획부 국제정책과

TEL : +81-956-24-1111(ex 3261-3262)

+81-956-25-9647

FAX : +81-956-37-6134

E-mail: koksai@city.sasebo.lg.jp

(집필: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협력: CLAIR, Seoul)

갓포레이



스노보드를 타다 셰프가 되었다는
'갓포레이'의 박준형 셰프는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고 있을까.
그의 인생에 담긴 요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갓포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었나요.

'레이'라는 일본요리점문점을 운영하다, 이곳으로 확장하면서 갓포를 앞에 붙여 '갓포레이'라는 이자카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이'에는 감사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요리를 맛있게 드셔주시는 분들과 요리를 가르쳐주신 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오사카로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일본 요리를 먹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요리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은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노보드 선수가 될 뻔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접고는 중국에서 2년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가 되면 자기 생활도 갖기 힘들고, 월급도 많지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요리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제가 배운 요리나 만들고 싶은 요리



를 집에서 자주해 준 덕분인지 매우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일본에 가서 배우셨나요.

일본 유학 대신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입학했는데,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요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나중에 동부 이촌동의 다츠미시에서 일하다 후쿠오카 본점으로 연수도 갈 수 있었으니까요.

연수 중이나 점포를 내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고생한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레이’를 열었을 때는 일본의 코스 요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초밥’이나 ‘우동’을 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코스 요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죠. 그러다 1명, 2명 단골이 생기면서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운영하기가 힘들었어요. 2년정도 전부터는 저희 같은 요리 전문점이 생기면서 코스 요리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연수할 때 고생한 것은 일본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주방 용어 등을 전부 외우면서 문제 없이 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거의 현장에서 배운 서바이벌 일본어라 할 수 있습니다(웃음).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손님들께서 행복한 표정으로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자주 찾아주실 때, 우리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일본 요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모양은 물론이고, 신선한 재철 재료를 이용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일본 요리의 매력이 아닐까요. 최근 웰빙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철 식재료를 많이 찾게 되었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음식이 일본 요리가 아닐까 합니다.

일본 현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모든 식재료를 구입하는 등 일본의



맛을 그대로 제공했어요. 하지만 드시는 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런 맛과 향으로 즐깁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만족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결국은 중간 정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물 요리의 경우, 짠 맛과 단 맛이 강하다고 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간을 조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계획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2호점을 내고 보니 생각한 것 만큼 쉽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앞으로는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백제 왕 전설이 있는 미야자키현

이번 구마모토(熊本)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미야자키현은 지진의 영향이 없어,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규슈(九州) 남쪽에 위치하는 미야자키현(宮崎県)은 남북으로 기다란 모양을 하고 있어, 남부해안은 미야자키현의 나무인 ‘피닉스 야자’로 상징되는 남국의 정서가 감도는 온난한 기후이고, 북부 산간지역에는 일본 최남단의 스키장이 자리해 사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이 넘친다. 또 농림수산업이 발달하여, 천혜의 태양과 맑은 물로 키워낸 10년 연속 일본 최고를 자랑하는 쇠고기인 미야자키규(宮崎牛)를 비롯해, 신선하고 맛있는 식재료가 가득한 음식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겨울에도 따뜻해 골프를 즐길 수 있어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매년 많은 분들이 미야자키를 찾아 골프를 즐기고 있다. 온천은 바다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아오시마(青島) 온천을 추천한다. 태평양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온천을 즐기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그럼, 미야자키현의 관광지 중, 특히 한국 분들께 추천하는 장소를 몇 군데 소개하고자 한다.



다카치호코 협곡

다카치호코 협곡(高千穂峽)은 태곳적 아소산(阿蘇山)의 화산활동으로 생겼으며 높은 곳은 100m, 평균 80m의 절벽이 동서로 약 7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미야자키현 북부, 구마모토현 아소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산책길이 정비되어 있어 계곡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강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다. 규슈 올레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협곡 안에는 일본의 폭포 100선에 선정된 유명한 ‘마나이노타키(真名井の滝)’ 폭포가 있으며, 여름에는 조명이 켜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또, 유료보트를 대여해 탈 수 있는데, 보트를 타고 수면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주상절리의 단애절벽과 미나이노타키는 장관이다. 5월 신록의 계절과 가을 단풍철을 추천한다.

아오시마

미야자키현 남부에 위치한 아열대식물군이 자생하는 아오시마(青島) 섬. 미야자키 공항의 바로 옆에 있다. 신의 섬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에는 오니노센타쿠이타(鬼の洗濯板) 즉 도깨비빨래판으로 불리는 천연기념물의 파상암이 펼쳐지며, 자연의 신비에 싸여있다.

섬까지 걸어서 건널 수 있지만, 참배길부터 아오시마 중앙까지 유료로 톡톡(태국식 삼륜 오토바이)을 타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다. 아오시마 신사는 인연을 맺어주는 신으로도 유명하다. ‘미술랭 그린 가이드 일본’에서 별 두 개를 받았다.



크루스노우미

크루스노우미(クルスの海) 즉 십자의 바다는 바위가 침식되어 십자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방문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전망대에는 종을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크루스노가네(クルスの鐘) 즉 십자의 종이 있다.

백제관

6세기부터 7세기에 한반도에서 멸망한 백제 왕족이 표착했다는 백제 왕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백제관(百濟の館)이 지어졌다. 백제시대 국보 복제품 등이 있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고도 ‘부여’의 왕궁 터에 세워진 전 부여국립박물관 ‘객사’를 모델로 한국과 일본 교류의 상징으로 만들어졌다.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의 협력을 얻어 세워진 건물로 지붕의 곡선과 배색이 매우 선명하고 아름답다. 기와와 포석은 한국에서 들여왔



으며, 대들보나 처마에 그려진 빨강, 파랑, 녹색 같은 극채색의 단청은 본고장 한국 장인의 솜씨다. 관내에는 백제시대 국보·중요문화재 복제품 등을 다수 전시하고 있으며, 일본 전역 백제문화의 발자취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미야자키산 쇠고기

미야자키산 쇠고기(宮崎牛)는 '와규(和牛, 일본의 토종 소) 올림픽'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일본 최고의 육질로 평가되는 미야자키가 자랑하는 브랜드 쇠고기다. 부드러움이나 색, 맛 등 일본 전역에 자랑하는 최고의 쇠고기다.

토종닭 숯불구이

숯불로 천천히 노릇노릇하게 익힌 미야자키를 대표하는 토종닭 요리. 맑은 공기와 웅대한 대지에서 쭉쭉 자란 토종닭으로 만든 숯불구이는 육질의 탄력과 짭 찢히는 감칠맛 그리고 씹는 맛이 있으며,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미야자키현의 수많은 관광지과 맛있는 식재료의 극히 일부를 소개했다. 미야자키현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URL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처음 오신 분도, 이미 오셨던 분도 미야자키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과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 꼭 방문하시기 바란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문의

미야자키현 관광추진과

<http://www.pref.miyazaki.lg.jp/kanko-suishin/>

미야자키 관광정보 제철 네비(한글)

<http://www.pref.miyazaki.lg.jp/kanko-suishin/>

미야자키현 관광 동영상

<https://www.youtube.com/embed/GQbb3m8YUTY>

오시는 길

인천-미야자키 아시아나 항공으로 약 90분

(집필: 미야자키현, 협력: CLAIR, Seoul)



번역이 다 리 놓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는—

김경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전(前) 번역관



‘드럭, 드럭, 드르럭’

30여년 동안 작업해온 번역 원고들이 파쇄기(shredder) 속에서 종잇가루로 변하는 소리다. 퇴직을 앞두고 그간 캐비닛과 서랍, 상자들에 쌓아 뒀던 원고를 버릴 것은 버리고 앞으로 혹여 쓰임새가 있을까 싶어 보관할 것으로 분리하는 데 거의 한 달, 다시 그냥 버려도 될 것과 파쇄기에 넣을 원고로 분리해 처리하기까지 족히 또 한 달은 걸린 듯하다.

한 자 한 자 손으로 쓴 것, 타이핑한 것, 말끔히 프린트된 것.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일일이 써서 붉은 펜으로 수정한 뒤, 새로 옮겨 쓰는 수작업을 거쳤었다. 이런 원고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보며 마음 같아서는 내 분신과도 같은 번역 원고들을 통째로 집에 가져가고 싶었다.

지난 4월 16일, 나는 약 41년의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정년 퇴직했다. 75년 6월에 입사해 8년 여 몸담았던 정치부. 그곳을 떠나 문화원으로 옮긴 후, 맨 처음 맡은 일

은 월간 정보지 ‘일본의 새소식’과 계간지 ‘일본의 메아리’의 편집 발행이었다. 나는 이 때 대선배이신 고(故) 김우열 선생님 곁에서 일하며 번역자, 아니 일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웠다. 격조 있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며, 늘 사전들을 가까이 하고, 모르는 것은 새까만 후배에게도 서슴없이 묻고 상의하는 분이셨다. 함께 일한 기간은 한 3~4년쯤 될까. 하지만 내 삶의 마디마디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다. 1990년의 노태우 대통령 방일 때 일본 측의 번역을 위해 도쿄 출장을 가게 된 것도 그 분의 추천이 있어서였는데, 처음 맡는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없이 불안했다.

아직 워드 프로세서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일본어 타이피스트인 송여사님과 2인 1조로 비행기를 탔다. 9박 10일의 긴 출장이었지만 필요한 짐은 최소한으로 꾸려야 했다. 부피가 큰 와분(和文) 즉 일본어 타이프와, 나는 두툼한 한국어대사전과 일한사전, 일본어 한자사전 등 너댓 권의 사전을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어 타이

프와 필요한 사전 등은 각자 지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의무성의 한 방에서 마냥 기다리던 시간들. 처음 일거리를 받아든 순간의 긴장감과 떨림. 수없이 바뀌고 또 바뀌는 스피치 내용. 방일 이전부터 언론 등에 계속 보도되며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내용이라 토씨 하나에도 피가 마르는 듯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시간들이 내게는 자신감을 가지고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93년의 김영삼 대통령 방일. 이 때도 둘이 출장을 갔다. 다만 부피가 작아진 워드 프로세서와 사전들을 들고... 두 번째인 데다 낯설지 않은 방이라서 그런지 긴장과 부담은 훨씬 덜했던 걸로 기억된다.

99년 1월 편집에서 손을 떼고 원장 비서로 자리바꿈을 한 이후로는 줄곧 번역과 함께 비서일을 해왔다. 일본문화원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나카네 다케시(中根猛) 당시 원장도 지난 1월말 독일대사를 끝으로 퇴임하셨는데, 그 분 밑에서 비서로 일하며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예술가와 교수 등 많은 분들을 뵈고 알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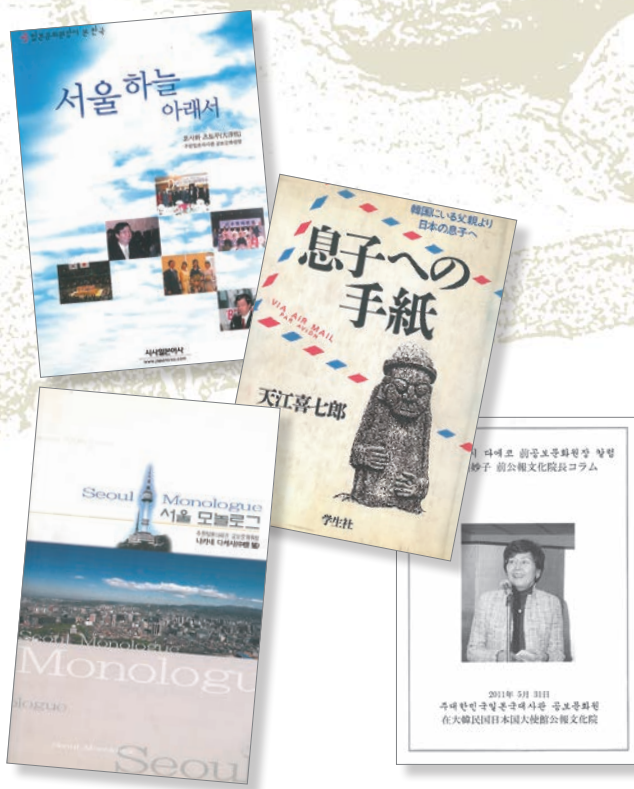
이임 후에도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꾸며 한국의 벗들

과 교류를 이어온 나카네 대사님은 5월 중순 서울에서 여러 선생님을 모시고 나의 송별회를 열어 주시기도 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보람 있고 애착이 가는 것은 역시 번역이다. 스피치와 담화, 보도문, 강연문, 기고문, 서한, 인사말, 에세이와 칼럼 등등. 그 중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역대 대사님과 원장님들의 칼럼은 우리 말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대사관의 번역은 아무래도 딱딱한 문장이 주를 이룬다. 그런 속에서 글쓰기와 교감하며 나의 어휘력과 표현력을 펼칠 수 있는 수필이나 칼럼은 샘플과도 같았다. 88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 '일본의 새소식'에 매달 연재되어 인기가 높았던 아마에 기시치로(天江喜七郎) 원장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새소식 칼럼의 효시로서 번역의 재미에 눈뜨게 해준 정이 가는 글이다. 또 한국 근무 동안 썼던 글들을 책으로 엮어낸 마치다(町田), 나카네(中根), 오시마(大嶋), 다카하시(高橋) 원장님도 기억에 남는다.

번역은 다리놓기이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어주는... 그 다리는 튼튼하고, 쓸모 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집에서 틈틈이 읊졌던 미치코(美智子) 황후의 "다리를 놓으며"는 번역자로서의 자세와 책임을 확립시켜 준 고맙고도 향기로운 글이다.

한일관계가 순조로울 때면 '후유' 하고, 어려울 때면 애태우며 지내온 시간들. 그리고 양국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한결같은 소망. 그 시간들을 함께해 온 십여 권의 사전. 너털너털해진 나의 오랜 '길동무' 사전과 살아남은 원고, 동료들이 정성껏 만들어준 '정년퇴임 기념 포토북', 퇴직 직전의 '강화도 여행'의 추억을 안고 제2의 인생에 첫발을 내디딘 지 이제 한 달 열흘이다. 마지막 1년 반 남짓을 편하고 따뜻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배려주신 사토(佐藤) 원장님을 위시한 문화원 식구들은 송별회 자리에서 이런 말로 나를 격려했다. "인생은 드라마다", "인생은 도전이다",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지난 40여년 밖에서는 무대 뒤의 스태프로, 집에서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자유의 시간을 누리고 있지만 인생의 제2막에서도 나의 도전과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코스프레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

5월 20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최한
'한일 교류 코스프레 이벤트'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3명의 코스플레이어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이름의 유래를 알려주세요

레이카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위화감이 없도록, 본명에 가까운 '레이카'로 했어요.

구로네코 평소에 검은 옷을 많이 입어서 이미지가 고양이 같다는 말을 친구들로부터 자주 들었기 때문에 '구로네코'를 닉네임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코스프레 네임이 되었죠.

이쓰키 아키라 모노크롬 팩터의 '아키라'라는 캐릭터 이름이 마음에 들어, 한자를 그대로 썼는데, 모두가 좀처럼 읽지 못해서 히라가나로 바꿨어요. 성은 문득 '이쓰키'가 멋있겠다 싶었고, '五木'라는 한자도 흔치 않아 '이쓰키 아키라'로 쓰게 되었습니다.

코스프레를 시작한 계기, 빠져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레이카 동인지를 만드는 동아리의 일원으로 고향의 작은 이벤트에 참가했을 때, 코스튬플레이어를 봤는데, 빛이 나는데다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고등학교에서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어서, 모처럼이니 의상을 만들어 코스프레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캐릭터의 옷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에 감동해서 점점 코스프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구로네코 도쿄의 코믹마켓에 가서, 뭔가 추억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코스프레 광장에 참여한 것이 계기예요. 처

名前の由来を教えてください。

麗華 自分が呼ばれた時に違和感のないように、本名に近い「麗華」にしました。

くろねこ 普段から黒い服を着ることが多く、イメージが猫っぽいと友達によく言われていたので、「くろねこ」をハンドルネームで使っていました。それが自然とコスプレ・ネームになりました。

五木あきら モノクローム・ファクターの「昶」というお気に入りのキャラクターの名前が良いと思って、漢字をそのまま使っていましたが、みんながなかなか読めなかったのも、ひらがなに変えました。苗字は、ふと「いつき」がカッコいいと思い浮かび、「五木」の漢字が珍しくて良いと思って「五木あきら」にしました。

コスプレを始めたきっかけ、のめり込んだきっかけを教えてください。

麗華 同人誌を作るサークルの一員として地元のイベントに参加した時、コスプレイヤーさんを見て、キラキラしていて楽しそうだなと思いました。高校で服を作る技術を学んでいたもので、せっかくだし衣装を作ってコスプレしてみようと思ったのが始まりでした。最初は恥ずかしかったのですが、キャラクターの服を自分で作れることに感動し、段々コスプレにはまっていきました。

くろねこ 東京のコミックマーケットに行って、何か思い出を作

음 하는 코스프레였는데 여러 사람이 말을 걸어주고, 제 코스프레를 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거기서 높은 완성도의 다른 코스프레를 보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쓰키 아키라 처음에는 좋아하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 후, 코스프레를 하고 싶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자,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코스프레 이벤트에 가서 처음으로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셨고, 인상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레이카 지금까지 33개국 정도 갔는데, 이 가운데 페루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벤트 주최 측이, 옛날에 일본에서 페루로 건너간 이민자 자손들이 만든 일본문화 회관 단체였어요. 이민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관도 견학했는데, 과거 이민역사가 현대의 코스프레 이벤트로 이어졌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로네코 저는 중국, 홍콩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일본 팬들에 비해, 해외 팬들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쓰키 아키라 저는 약10개국을 돌았는데,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국은 무대에서 하는 퍼포먼스가 더 발달했어요. 또, 유럽에서는 '자기가 의상을 만들지 않으면 코스튬플레이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작품, 캐릭터를 좋아하세요.

레이카 '박앵귀(하쿠오우키)'의 히지카타 도시죠입니다. 저의 이상인 히지카타 도시죠의 모습에 가장 가까워, 50회 이상 코스프레 한 것 같네요(웃음).

구로네코 여러 작품과 캐릭터를 좋아하지만, 검고 짧은 머리의 귀여운 여자 캐릭터와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작



りたいと考え、コスプレ広場に参加することにしたのがきっかけです。初めてのコスプレだったのに、色々な人に声を掛けられ、自分のコスプレを楽しんでくれる人がいたのが、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そこで、他のコスプレの強いウオリティーをみて、自分も本格的にコスプレをしたいと思いました。

五木あきら 最初は大好きなキャラクターの衣装が着たいという思いから始まりました。その後、コスプレ願望をブログに書き込んでいたら、同じ思いを持っている友達に出会えました。その友達と一緒にコスプレイベントに行き、そこで初めてコスプレをしました。

日本のみならず、外国でも活動されていると伺いましたが、どんな国に行かれ、印象に残っていることなどありますか？

麗華 今まで33か国くらい行きましたが、中でもペルーが一番印象に残っています。イベント主催側が、昔、日本からペルーへ渡った移民者の子孫が作った日本文化会館の団体でした。移民の歴史を知ることができる資料館の見学もしましたし、過去の移民の歴史が現代のコスプレイベントに繋がっていることがすごいと思いました。

くろねこ 中国、香港、そして今回の韓国に行きました。日本のファンに比べて、海外のファンは熱烈で積極的な方が多いと思います。

五木あきら 約10カ国を回りましたが、それぞれの国によって特徴があると感じます。例えば、中国はステージでのパフォーマンスがより発達していると思います。また、ヨーロッパでは「自分で衣装を作らなければ、コスプレイヤーじゃない」との認識が強いのも印象的でした。



どんな作品、キャラクターが好きですか。

麗華 『薄桜鬼』の土方歳三です。自分が理想とする土方歳三像に最も近く、50回以上はコスプレしました(笑)。

くろねこ 色々な作品やキャラクターが好きですが、黒髪ショートの可愛い女の子のキャラクターやそのようなキャラク

품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쓰키 아키라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특히 싸우는 여자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잘하는 코스프레나 인기 있는 코스프레가 있나요.

레이카 '노래의 왕자님(한국명)'의 친구지 렌입니다. 잡지 등에 실린 여러 의상을 보고 20벌 이상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코스프레를 한 캐릭터 같네요.

구로네코 '마녀 배달부 키키(한국명)'의 키키요, '키키 이미지 그대로'라는 평이 많아서 매우 기뻐요.

이쓰키 아키라 '러브라이브!'의 도조 노조미와 닌텐도사의 마리오예요. 특히, 제 마리오가 인터넷으로 퍼져나갔는데, 기분 탓인지 따라 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코스프레는 무엇인가요.

레이카 '좋다'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코스프레를 통해 저는 이 작품이 얼마나 좋고, 이 캐릭터를 누구보다 좋아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전하고 있어요.

구로네코 코스프레는 나 자신도 즐기면서 보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쓰키 아키라 코스프레는 제게 너무 큰 존재가 되었고, 제 생활의 중심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등이 있다면.

레이카 의상을 더 잘 만들고 싶습니다. 이벤트에서 코스프레 의상의 심사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당히 심사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켜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네코 코스프레 문화가 더욱 친근해져,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코스프레를 통해 작품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합니다.

이쓰키 아키라 코스프레가 더 유명해져서, 단지 의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코스프레의 (매력에) 깊이 빠졌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레이카 씨처럼 의상을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작품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五木あきら女の子が出る作品が好きで、特に戦っている女の子のキャラクターが好きです。

得意のコスプレや人気のコスプレなどがありますでしょうか。

麗華『うたのプリンスさまっ』の神宮寺レンです。雑誌とかでよく書き下ろしがあって、20種類以上の衣装を作ったので、最も数をこなしたキャラクターだと思います。

くろねこ『魔女の宅急便』のキキです。「イメージ通りのキキだ。」と多くの方から評価してもらい、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五木あきら『ラブライブ!』の東條希と任天堂のマリオです。特に、マリオはネットで広がり、真似してくれる女の子も心なしか増えたように思いました。

皆さんにとってコスプレとはなんですか。

麗華「好き」の表現の方法です。コスプレを通じて、私はこの作品がどれくらい好きで、こ

のキャラクターが誰よりも好きだということをみんなに伝えています。

くろねこ コスプレは自分も楽しみながら、見ている人にも楽しんでもらえるものだと思います。

五木あきら 私にとっては、すごく大きな存在となっていて、コスプレは私の生活の中心になっています。

今後の計画や夢などがあれば。

麗華 もっと衣装を上手に作れ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イベントでコスプレ衣装の審査員として呼ばれることが多いですが、胸を張って審査できるくらい、自分の技術も上達させないといけないといつも思っています。

くろねこ コスプレ文化がより身近になり、みんなが気軽にコスプレを通じて作品の表現を楽しめるようになってほしいです。

五木あきら コスプレがよりメジャーになって、ただ衣装を着るだけではなく、コスプレの深みにはまってほしいです。個人的には、麗華さんのように衣装を上手く作れ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



‘한일 교류 코스프레 이벤트 & 코스프레 컬렉션 010 in Seoul’ 개최되어

5월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이틀간 주한일본대사관은 일본의 코스프레 이벤트 기획사인 Negibose KONDO Inc 와 공동으로, ‘한일 교류 코스프레 이벤트 & 코스프레 컬렉션 010 in Seoul’ 을 개최했다.

5월 20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진행된 ‘한일 교류 코스프레 이벤트’는 DJ 겸 코스플레이어인 DJ Taka Sushi의 경쾌한 디제잉을 시작으로, 한국의 유명 코스플레이어인 UE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방한한 인기 코스플레이어 레이카 (麗華), 이쓰키 아키라(五木あきら), 구로네코(くろねこ) 외에도 한국 코스플레이어 MAKU, 아마테라스가 차례로 등장하여 좌담회와 관객과의 대화, 퍼포먼스 등을 통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코스프레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5월 21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코스프레 컬렉션 010 in Seoul’에는 총 37팀의 한국 코스플레이어가 <TOKYO GAME SHOW COSPLAY CONTEST>를 통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이날의 최종 우승자는 게임 언더테일의 캐릭터로 변신하여 멋진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올 가을에 열리는 도쿄 게임쇼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 밖에도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코스플레이어의 퍼포먼스와 플리마켓, 의상 체험 및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코스프레 문화를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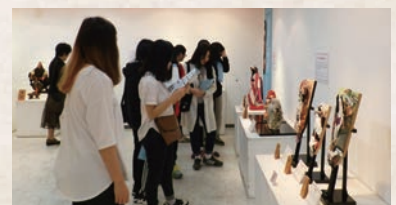
‘일본인형전’ 큰 호평 속에 열려

5월 11일(수)부터 27일(금)까지 13일간 당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 ‘일본인형전’ 서울 전시가 큰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이 전시는 일본국제교류기금 해외순회전의 일환으로 울산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제주, 대전에서도 개최된다.

전통풍습인형, 전통예능인형, 지역인형, 창작인형 등으로 분류된 70여 점의 인형을 소개한 이 전시는 일본의 다양한 인형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중고생 단체 관람객이 많았으며, 13일간 2,700여 명이 전시장을 찾아 일본인형의 진수를 느꼈다.

관람객으로부터 “섬세함과 화려함이 놀랍다.” “인형에 대한 설명이 있어 좋았다.” “각 인형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점이 색달랐다.” “다양한 인형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 “일본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책에서만 보던 인형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종류의 일본대중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형전’은 생소한 일본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일본문화를 소개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14회 일본가요대회

일본가요대회가 올해로 14회를 맞이한다. 이 행사는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40세 미만의 한국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팀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입상자에게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부여되며 푸짐한 부상도 준비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도전해 보기 바란다.

본선 7월 29일(금) 18:30~

예선 7월 15일(금) 14:00~, 7월 17일(일) 11: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반법인 음악산업 · 문화진흥재단(PROMIC)

후원 ㈜DREAM BOY

협찬 DK KOREA, ANA, YAMAHA MUSIC KOREA, Nikon, NOOK

[응모관련]

기간 6월 13일(월)~7월 11일(월)

방법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jmic@so.mofa.go.jp) 접수

본선 진출자 발표 7월 21일(목)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문의 02-765-3011(ex 110,125) jmic@so.mofa.go.jp *자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2016 전국고등학생 일본어스피치대회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전국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습득한 일본어 교육의 성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 전국고등학생 일본어 스피치대회' 본선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본선대회에는 각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명의 고등학생이 출전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일본에서 열리는 '제21회 해외교생에 의한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의 출전 기회를 포함한 11박 12일의 일본연수, 금상(2명), 은상(3명), 동상(5명)에게는 9박 10일간의 일본방문프로그램 참가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관람무료.

일시 6월 25일(토) 14:00~17: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NPO법인 E.G.G(에듀케이션 가디언그룹)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시사일본어학원, ANA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ex 153)



제5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모집요강

전국(영남지역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최) 일본어연극제에 신청)의 일본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습득한 일본어학습의 성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 일본관련학과 학생들간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응모서류, 시상내용 및 연극참가자격, 경비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일시 11월 19일(토) 14:00~18: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사)한일미래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응모관련]

기간 및 접수 5월 23일(월)~ 6월 15일(수) 우편접수(6월 15일까지 필착, 방문접수 가능)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4 (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제5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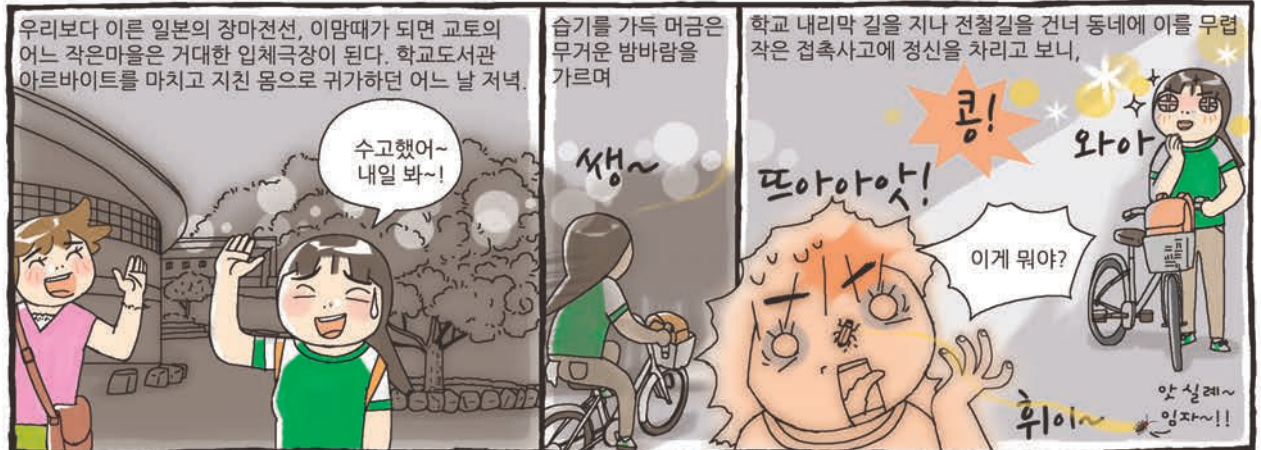
본선 진출대학 발표 6월 24일(금)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

본선참가 결정대학에 한해 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개별통보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ex 120, 123, 153)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살기



여기서 잠깐! 반딧불이에 관한 공알지식.

세계에는 약 2000종의 반딧불이과 곤충이 있고 일본에는 약 45종의 반딧불이가 서식한다. 그 중에서도 겐지보타루, 헤이케보타루, 히메보타루 이 세 종류가 대표적이다.

반딧불이는 수컷보다 암컷이 조금 더 크고 수컷은 꼬리부분 두 마디가 반짝이며 암컷은 한 마디가 반짝인다.

♂
 ♀

1. 겐지보타루 (겐지보타루)
(ゲンジボタル)
크기: ♂ 1.5cm, ♀ 1.8cm
발광주기: 약 2초간격(서일본형) 약 4초간격(동일본형)

2. 헤이케보타루 (헤이케보타루)
(ヘイケボタル)
크기: ♂ 0.8cm, ♀ 1.0cm
발광주기: 약 1초간격

3. 히메보타루 (히메보타루)
(ヒメボタル)
크기: ♀ 0.5cm, ♂ 0.7cm
발광주기: 약 0.5초간격

이 중 몸집이 제일 크고 밝은 겐지보타루는 일본 최고(最古)의 문학 '겐지모노가타리' (源氏物語)의 등장인물인 히카루겐지(光源氏)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에헴~ 할끔

